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 영향에 미치는 생활스트레스 영향 연구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효정,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A study on the Impact of life stres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ndenc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Hyo Jung Jung, Sung 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시 Y구에 있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응답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한 답변 13부를 제외하고 137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분석 및 통계적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개인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표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릿은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스트레스는 그릿을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그릿, 대인관계성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S시 Y구에 소재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dolescents' life stress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enacit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in District Y, City S, from September 4, 2023, to December 8, 2023. A survey was conducted, and 137 responses were analyzed, excluding 13 missing or insincere response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A three-step mediation effect analysis and Sobel Test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on effect between measured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life stress, school stres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role orientation and social relationship orient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In addition, among the sub-factors of life stress, personal and school stress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he expression tendency among the sub-factors of interpersonal propensity. Second, tenac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impact of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These results mean that life stress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tenac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life stress, tenacity, and interpersonal tendencies and in-depth verified the impact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tendencies. Meanwhile, this study surveyed a random sample group of adolescents located in the Y district and S City, so there ar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Keywords : Adolescents,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Gri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June 7, 2024

Revised July 4, 2024

Accepted July 5, 2024

Published July 31, 2024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간은 사회생활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타인과의 바람직한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의 자존감, 인격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 및 직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1]. 특히 청소년들의 지각한 대인관계는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2]. 또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이 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3]. 이 의미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인관계성향은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행위, 어떤 언행, 어떤 반응을 하는지의 성향”을 의미하며[3], 하위요인은 ‘역할성향’, ‘관계성향’, ‘표현성향’으로 구분된다[4].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은 발달과업에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변인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생활스트레스이다. 그 이유는 살펴보면,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은 발달과업에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 생활사건과 중대 생활사건 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친구나 가족 간의 다툼, 외로움, 숙제, 성적, 소중한 물건의 분실 및 사소한 생활사건”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는 ‘개인스트레스’, ‘가정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로 구분된다[7]. 특히 학생의 스트레스는 그것이 중요한 변인이다. 그 이유는 살펴보면, 학생의 그것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것은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속해서 도전하고 인내하는 개인 특성”이며, 하위요인은 ‘흥미유지’, ‘노력지속’으로 구분된다[9]. 그것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를 보였고[10],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중단 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도 그것은 매개효과를 보였다[11]. 또한 고등학생의 분노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 관련하여 중요한 매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것은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의 인과관계를 매개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것이 매개하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활용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변인 간의 선행연구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적지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2],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13]. 또한 대인관계성향이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특히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6].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생활스트레스, 그것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15],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이 보였다[16]. 또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특히 대학생의 그것, 대인관계유능성,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8].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에는 그것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생활스트레스를 상정하여,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의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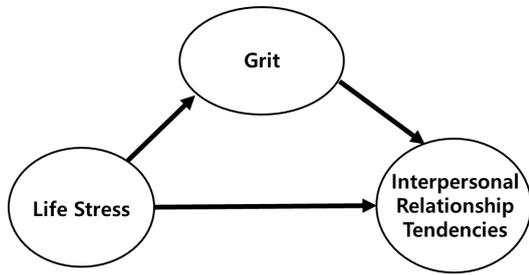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S시 Y구에 있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50부 중 불성실한 답변 13부를 제외하고 13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5문항, 생활스트레스 25문항, 그릿 8문항, 대인관계 성향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년, 성적, 학교 유형, 지역으로 구성되어 설문조사하였다. 측정용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2.2.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선관수[7]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개인 스트레스(8문항), 가정 스트레스(9문항), 학교 스트레스(8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생

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스트레스 .821, 가정스트레스 .874, 학교스트레스 .8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스트레스 .830, 가정스트레스 .888, 학교스트레스 .869으로 나타났다.

2.2.2 그릿 척도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가 개발한 척도를 김희명·황매향이 한국판 그릿 척도로 수정하였다. 이 도구를 고용자[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흥미유지' 4문항, '노력지속'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유지 4문항(1번, 2번, 3번, 4번.)은 부정적 문항으로 역 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서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70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흥미유지는 .668, 노력지속은 .74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4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흥미유지는 .705, 노력지속은 .749로 나타났다.

2.2.3 대인관계성향 척도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y의 대인관계 행동 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등이 밝힌 대인적 반응 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가 재구성하였다. 이를 박금숙[4]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역할성향' 4문항, '관계성향' 7문항, '표현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 코딩하였다(12번, 13번, 16번, 17번).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82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0.630, 관계성향은 0.816, 표현성향은 0.6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0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627, 관계성향은 .612, 표현성향은 .67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스트레스, 그릿,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 (1987)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70명(51.1%), 여자가 67명(48.9%)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고등학생이 7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5명(32.8%), 기타 16명(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Sortation		Frequency	%
(N=137)			
gender	man	70	51.1
	woman	67	48.9
School year	middle school	45	32.8
	High School	76	55.5
	ect	16	11.7
Grade	Lower	34	24.8
	Middle	48	35.0
	High	55	40.1
School Type	Humanities High School	65	47.4
	Business High School	27	19.7
	middle school	45	32.8
Area	City	107	78.1
	Farm Village	30	21.9
	total	137	100.0

성적에서는 상이 55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 48명(35%), 하 34명(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서는 인문고가 65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45명(32.8%), 실업고 27명(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도시가 107명(78.1%), 농촌이 30명(21.9%)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2.5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하위변수에서는 개인스트레스가 2.82로 가장 높았고, 학교스트레스가 2.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성향은 3.18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는 사회관계성향이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현성향이 3.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릿은 3.02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는 흥미유지가 3.05, 노력지속이 3.00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0.42부터 0.75로 ± 3.0 이내에 존재하였고, 첨도는 -0.44부터 2.10으로 ± 10.0 이내에 존재하고 있어 측정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Sortation	N	Mean	SD	Skewness	Kurtosis
Personal Stress	137	2.82	.77	.37	.10
Family Stress	137	2.48	.85	.55	-.35
School Stress	137	2.38	.80	.37	-.17
Life Stress	137	2.56	.70	.55	.32
Role Orientation	137	3.19	.88	-.06	-.44
Social Orientation	137	3.33	.72	-.42	1.09
Expression Disposition	137	3.03	.64	.75	2.10
Interpersonal Orientation	137	3.18	.62	.21	1.96
maintenance of interest	137	3.05	.84	.01	.25
continuation of one's efforts	137	3.00	.84	.49	.68
Grit	137	3.02	.74	.36	1.37

3.3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활스트레스가 그릿과 대인관계성향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릿($r=-.507, p<.001$)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성향의 하위변인역할성향($r=-.420, p<.001$), 관계성향($r=-.508, p<.001$), 표현성향($r=-.352, p<.001$)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역할성향($r=.462, p<.001$), 관계성향($r=.321, p<.001$), 표현성향($r=.414, p<.001$)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P	F	S	L	R.P	Re.P	E.P	I.R.T	M	C	G
P	1										
F	.514***	1									
S	.492***	.797***	1								
L	.762***	.915***	.892***	1							
R.P	-.229**	-.411***	-.430***	-.420***	1						
Re.p	-.371***	-.459***	-.474***	-.508***	.603**	1					
E.P	-.351***	-.223**	-.353***	-.352***	.525***	.603***	1				
I.R.T	-.379**	-.432***	-.406***	-.507***	.821**	.883***	.837**	1			
M	-.491***	-.214*	-.356***	-.399***	.360**	.253**	.326*	.365***	1		
C	-.507***	-.364***	-.416***	-.493***	.453**	.310**	.402**	.452***	.546**	1	
G	-.567***	-.329**	-.439**	-.507***	.462**	.321***	.414**	.464***	.880**	.879**	1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L: Life Stress, R.P: Role Propensity, Re.P: Relationship Propensity, E.P: Expression Propensity, I.R.T: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M:maintenance of interest, C:continuation of one's efforts, G:Grit

*p<.05, **p<.01, ***p<.001

3.4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3.4.1 역할성향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의 역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스트레스가 역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adj R2=180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8.0%로 나타났고, F=10.930으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W=1.236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는 0.1 이상, VIF는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스트레스($t=2.1748, p<.01$)는 역할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Role Propensity

model	N.C		N. 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4.405	.277			15.884	.000		
R.P	P	.009	.105	.007	.081	.935	.717	1.394
	F	-.196	.137	-.189	-1.429	.155	.346	2.894
	S	-.313	.144	-.283	-2.178*	.031	.356	2.808
R2=.198, adj R2=.180, F=10.930***, D-W=1.236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S: Common lineity statistic, R.P: Role Propensity,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p<.01, *p<.001

3.4.2 사회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가 사회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활스트레스가 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adj R2=243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4.3%로 나타났고, F=15.587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Social Relationship

model	N.C		N. 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4.664	.217			21.514	.000		
Re.P	P	-.143	.082	-.154	-1.753	.082	.717	1.394
	F	-.145	.107	-.172	-1.354	.178	.346	2.894
	S	-.235	.112	-.261	-2.091*	.038	.356	2.808
R2=.260, adj R2=.243, F=15.587***, D-W=1.537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S: Common lineity statistic, Re.P: Relationship Propensity,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p<.01, *p<.001

D-W=1.537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스트레스($t=-2.091, p<.01$)는 사회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3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성향 중 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가 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the Expression Propensity

model	N.C		N. 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4.012	.203			19.798	.000		
E.P	P	-.228	.077	-.275	-2.984**	.003	.717	1.394
	F	.191	.100	.254	1.908	.059	.346	2.894
	S	-.337	.105	-.420	-3.209**	.002	.356	2.808

R2=.189, adj R2=.170, F=10.307***, D-W=1.232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S: Common lineity statistic, E.P: Expression Propensity,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p<.01, *p<.001

adj R2=170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7.0%로 나타났다, F=10.307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W=1.232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0이하로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스트레스 (t=-2.984, p<0.01), 학교스트레스(t=-3.209, p<0.01)는 표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7와 같다.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7)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839, p<0.001). 2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827, p<0.001).

3단계에서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363, p<0.01),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398, p<0.001). 그리고 생활스트레스의 영향력이 2단계인 -0.507에서 3단계 -0.365로 감소되었고, Sobel Test 결과 z=-3.01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릿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model	N.C		N. F		t	p	C.I.S	p
	B	SE	β					
(constant)	4.402	.208			.257	46.770	21.142	.000
Grit	L.S	-.536	.078	-.507	(.252)	***	-6.839	.000
	(constant)	4.345	.176			.257	46.604	24.733
I.O	L.S	-.451	.066	-.507	(.251)	***	-6.827	.000
	(constant)	3.309	.352					9.411
I.O	L.S	-.325	.074	-.365	.314	30.736	-4.398	.000
					(.304)	***	***	
	S.S	.235	.070	.279			3.363	.001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G:Grit, I.C: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P.P.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bel test : -3.016***,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개인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표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에서 대학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등에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 또한 대인관계성향(전체)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고, 생활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청소년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그릿은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그릿을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그릿이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유능성에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연구[8]가 지지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그릿(Grit)이 스트레스와 대학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변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생활스트레스와 그릿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청소년의 개인 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는 줄이고,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학생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그릿이 대인관계성향에 중요한 변인이 확인되었다. 향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장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인내하는 개인 특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Y구에 소재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스트레스 요인과 그릿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생상담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성향의 영향요인 중 생활스트레스, 그릿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고, 그 외의 다양한 측면은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대인관계성향의 전반적인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References

- [1] S. M. Bae, "Validat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3, pp.51- 65, 2015. <https://www.riss.kr/link?id=A104121513>
- [2] Y. S. Choi, E. Y. Son,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cademic Achieve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Youth -The Comparison about the Gender and Grad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2, pp. 233-247, 2015. <https://www.riss.kr/link?id=A104127316>
- [3] W. J. Ka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Social Development of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3, No.3, pp.143-161, 2011. <https://www.riss.kr/link?id=A82676866>
- [4] K. S.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in Bullying or Being Bullie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nyang, Korea, pp.46-47, 2015. <https://www.riss.kr/link?id=T13771239>
- [5] Y. B. Ji,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iplin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ociability of Adolescent's Martial Arts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0, No.27, pp.343- 355, 2006. <https://www.riss.kr/link?id=A100580002>
- [6] J. H. Park, H. J. Choi, "Factor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Stres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Welfare and Health Education*, Vol.22, No.4, pp.39-48, 2021. <https://www.riss.kr/link?id=A107939570>
- [7] K. S. Sun,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in Adolescents' Life Stress, Self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pp.52-53, 2019. <https://www.riss.kr/link?id=T15337008>
- [8] H. J. Lee, M. R. Jo, N. K. Kang, N. K. Yang, J. H. Shin, H. I. Shim, J. H. Hwang, "The effects of gri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life-str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0, pp.683-693,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0.683>
- [9] Y. J. Ko, *Influence of Youth After School Academy of Grit on Youth Activity Competence-The Mediating Effect of Youth Worker Trus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53-62, 2022. <https://www.riss.kr/link?id=T16079763>
- [10] M. K. Ba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pp.1-7, 2023. <https://www.riss.kr/link?id=T16623361>
- [11] H. J. Park, C. S. Le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Drop-out Intention of High School Students: Doub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 Relationship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Journal of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8, No.2, pp.81-91, 2023
<https://www.riss.kr/link?id=A108574932>
- [12] J. H. Lee, *Comparis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social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patterns according to the types of protection of children affected by abus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Gyeongsang, Korea, pp.37-41, 2010.
<https://www.riss.kr/link?id=T11959294>
- [13] Y. J. Lee, M. H.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attributive tendenc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personal tend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Association*, Vol.1, No.2, pp.5-23, 2020.
<https://www.riss.kr/link?id=A105805807>
- [14] W. S. Lim, H. S. Choi,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s' Self-Esstem",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12, No.3, pp.147-170, 2010.
<https://www.riss.kr/link?id=A82570492>
- [15] S. T. Lim, J. H. Kim, U. H.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 between Stressors and Depression of Youth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3, pp.243-260, 2011.
<https://www.riss.kr/link?id=A82677158>
- [16] K.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and Dispositional Optimism o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of Life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7, No.4, pp.369-378, 2009.
<https://www.riss.kr/link?id=A99949968>
- [17] J. S. Park, H. J. Ahn, T. Y. Jung, "Life-Stress Fa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ts Influence on Their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 and Peer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1, No.1, 2013.
<https://www.riss.kr/link?id=A99724990>
- [18] B. M. Yeo,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Infants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pp.52-53, 2021.
<https://www.riss.kr/link?id=T15778288>
- [19] S. J. Lee,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 269-276, 2018.
<https://www.riss.kr/link?id=A105120866>

정 호 정(Hyo-Jung Jung)

[정회원]



- 2016년 2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 석사)
- 2023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학,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데이터베이스전공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교육학, 데이터베이스